

# 응급상황 대응 지침

홍길동요양원

# I. 응급상황 대응 지침

## 1. 목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응급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법의 기술을 통해 직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목표

- 1)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숙지한다.
- 2) 응급처치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 3)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의 종류, 판단 및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해 이해한다.

# II. 응급처치

## 1. 응급처치의 개념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 2. 응급처치의 목적

- 1)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한다.
- 2)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 3) 동통을 가능한 한 경감시킨다.
- 4) 가치있는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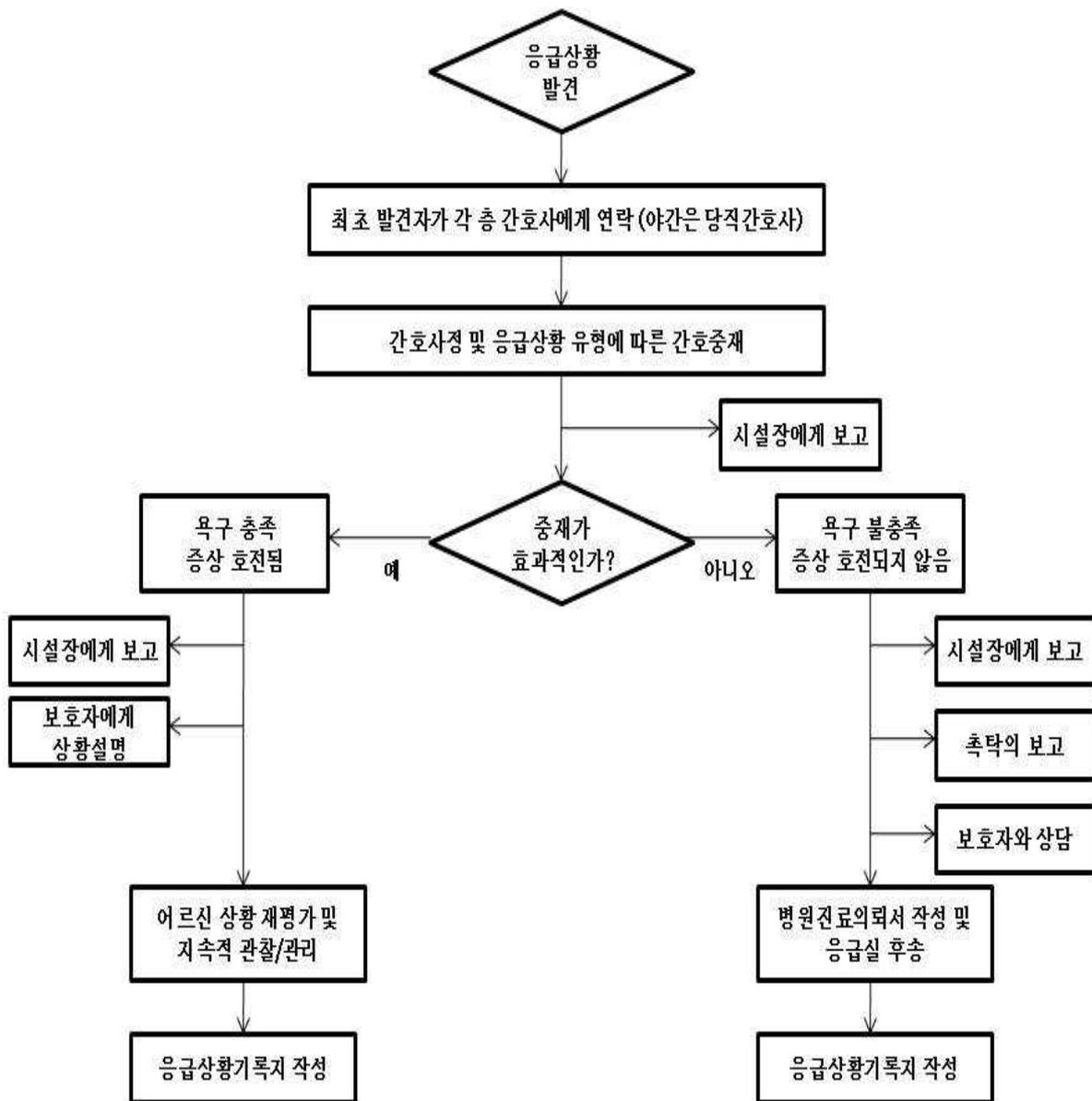
## 3. 응급처치 상황 시 일반원칙

- ① 종사자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②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부터 우선순위를 정한다.
- ③ 대상자의 부상정도 및 상태를 잘 관찰한다.
- ④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히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 ⑤ 대상자를無理하게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 안정시킨다.
- ⑥ 체온유지에 힘쓴다.
- ⑦ 부상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⑧ 대상자에게 부상부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⑨ 심한 출혈, 복부손상, 무의식,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음료수를 공급해서는 안된다.

- ⑩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보존한다.
- ⑪ 대상자가 심신의 위안을 갖도록 돕는다.
- ⑫ 종사자 본인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 4. 유니실버요양원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 체계

###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 5. 응급어르신 증재 :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란 심박동과 호흡이 거의 없는 어르신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심폐소생술 ◆



- **의식의 확인** : 돌아 눕힌 다음, 양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큰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외치면서 반응을 확인한다.



- **구조요청** : 의식이 없다고 확인되면 즉시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가슴압박** : 가슴의 정 중앙에서 약간 아래 부분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1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한다.



- **기도유지** : 한 손을 목뒤에 넣고 다른 한 손을 이마에 댄 후, 목을 들고 이마를 밀면 목 부위가 뒤로 젖혀진다. 목이 젖혀지면 이마에 있는 손은 그대로 둔 채, 목 뒤의 손을 빼내어 턱 끝을 들어올리면 기도가 열린다.



- **호흡확인** : 환자의 입과 코 근처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지 숨결이 느껴지는 지를 확인하면서 가슴이 오르내리는지를 관찰한다.



- **인공호흡** : 기도가 잘 유지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호흡, 기침, 손발의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 심장이 멎은 것으로 판단하고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 III. 응급상황의 종류 및 대응방법

## < A 응급상황의 종류에 따른 대응 >

### 1. 질식

질식이란 폐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로 코와 입이 이물질에 의해 막히는 경우, 기도가 막히는 경우, 가슴이 눌리는 경우 질식이 발생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은 어르신의 연하곤란으로 흔히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며,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 1) 증상

- ① 말을 하지 못한다.
- ② 갑자기 호흡이나 기침을 하지 못한다.
- ③ 양손으로 목을 쥐는 축킹싸인 (choking-sign)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된다.

#### 2) 예방법

연하곤란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음식을 삼키기 쉽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식사에 점도를 조절하여 흡인의 위험을 방지한다. (죽, 미음, 반찬잘게, 반찬갈기 등)
- ② 액체로 된 음식보다 농도가 진한 음식을 제공한다.
- ③ 소량씩 자주 공급한다.
- ④ 식사 전후에는 15~30분간 앉아 있도록 한다.
- ⑤ 편마비 어르신의 경우 손가락을 사용하여 마비가 없는 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 ⑥ 음식을 천천히 드시도록 한다

#### 3) 발생시 대응방법

##### 3-1) 의식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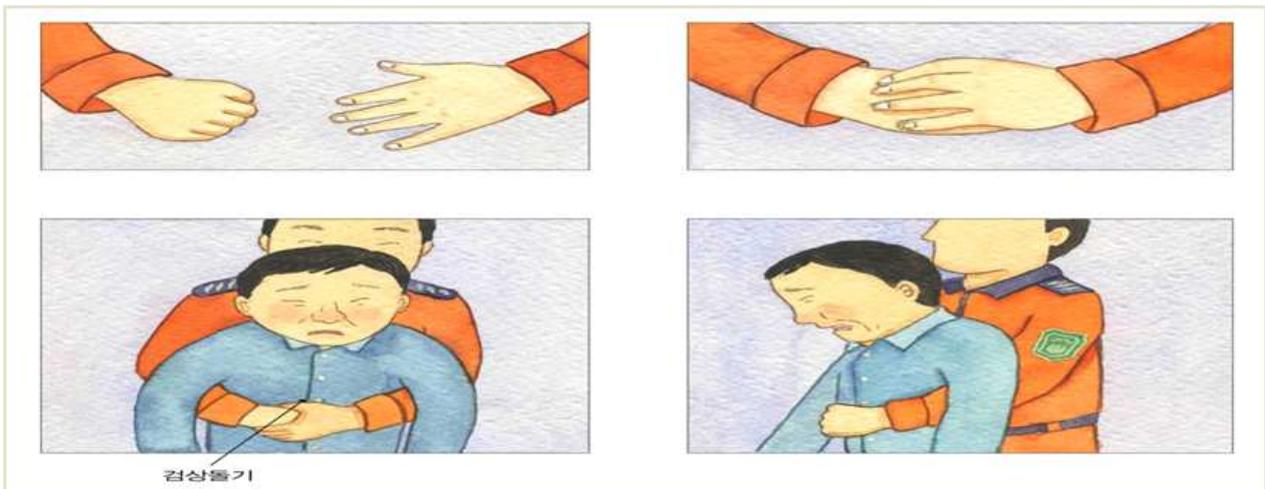
- ① 의식이 있는 어르신에게 협조를 구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 ② 어르신의 머리를 가급적 낮게 한다.
- ③ "목이 막혔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등을 두드린다.
- ④ 어르신의 가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좌우 견갑골 사이를 계속해서 두드린다.
- ⑤ 효과가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이용한다.

### ★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은 노인을 뒤에서 안는 것처럼 하여 이물질이 구강보다 깊이 위치하여 기도가 완전 폐쇄된 노인의 기도 내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1. 방법: 대상자의 등 뒤로 다가가 노인의 검상돌기 하부에 시술자의 한 손을 주먹을 쥔 채로 대고 다른 손으로 그 위를 잡은 후 4~5회 상방으로 복부를 강하게 압박한다. 이러한 방법은 횡격막을 급히 상승시키고 기도 내 압력상승으로 기도내 이물이 밀려나오도록 한다.
2. 유의사항: 복부와 흉부의 내부 장기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부 장기손상의 확인 과정이 요구되며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만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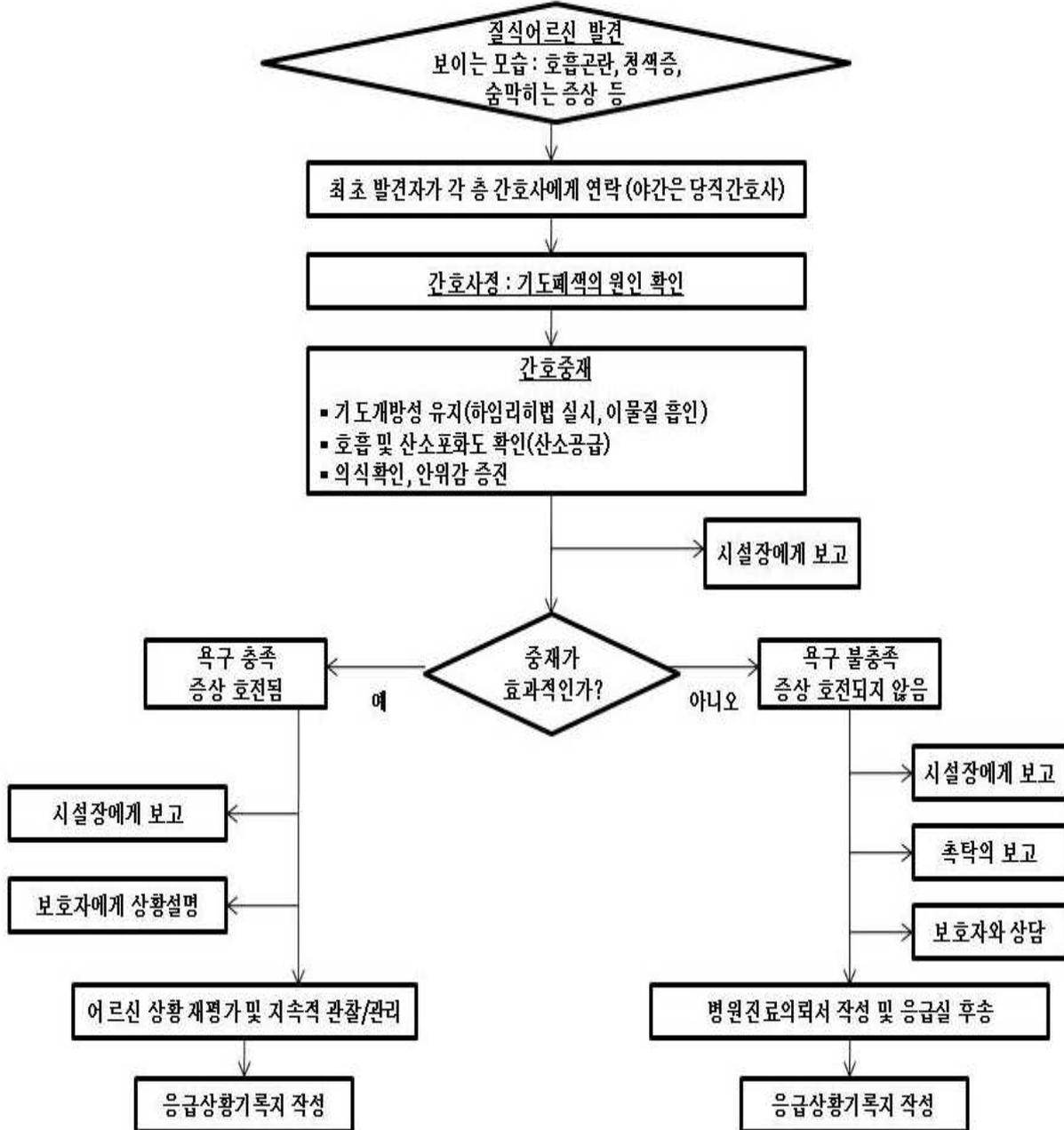
[ 출처: 요양보호사 직무교재- 보건복지부 ]



### 3-2) 의식이 없는 경우 대응방법

- ① 어르신을 옆으로 눕힌다.
- ② 어깨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좌, 우 견갑골 가운데의 등을 계속 두드린다.
- ③ 흉복부에 압력을 가한다.
- ④ 어르신을 위로 향하여 반듯하게 눕힌 다음 가슴 옆구리 아래에 양손을 놓고 가슴을 쥐어짜듯이 압력을 가한다.
- ⑤ 무의식 어르신의 경우 음식이나 약을 주지 않는다.  
-무의식 어르신은 의식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연하반사나 재채기반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어르신 입에 약이나 음식을 넣으면 호흡기로 이물이 들어가 기도폐쇄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므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 ⑥ 구강 내 이물제거는 의치가 있는 경우 꺼내고 어르신의 아래턱을 잡고 입을 열어 손가락으로 끄집어낸다.

# 질식 어르신 관리체계



## 2. 경련

경련이란 전신 또는 국소의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이다. 경련의 발병율, 이환율은 어르신에게서 높고, 급성 경련의 과반수 이상은 6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급성경련은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손상은 여자보다는 남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빈도가 높다.

### 1) 증상

- ① 대사성산증/알칼리증, 고칼륨혈증, 저혈당증, 탈수증, 수분중독
- ② 혀 깨물기, 청색증, 발한
- ③ 비정상적인 호흡수, 리듬, 깊이, 무호흡, 기도폐색 가능
- ④ 고혈압, 빈맥 또는 서맥, 장 불량, 침 과다분비, 실금 등
- ⑤ 의식없음, 근육긴장 및 경직, 안면의 국소적인 운동, 전조증상, 의식의 혼동, 기억상실
- ⑥ 근골격계의 약화, 마비, 운동실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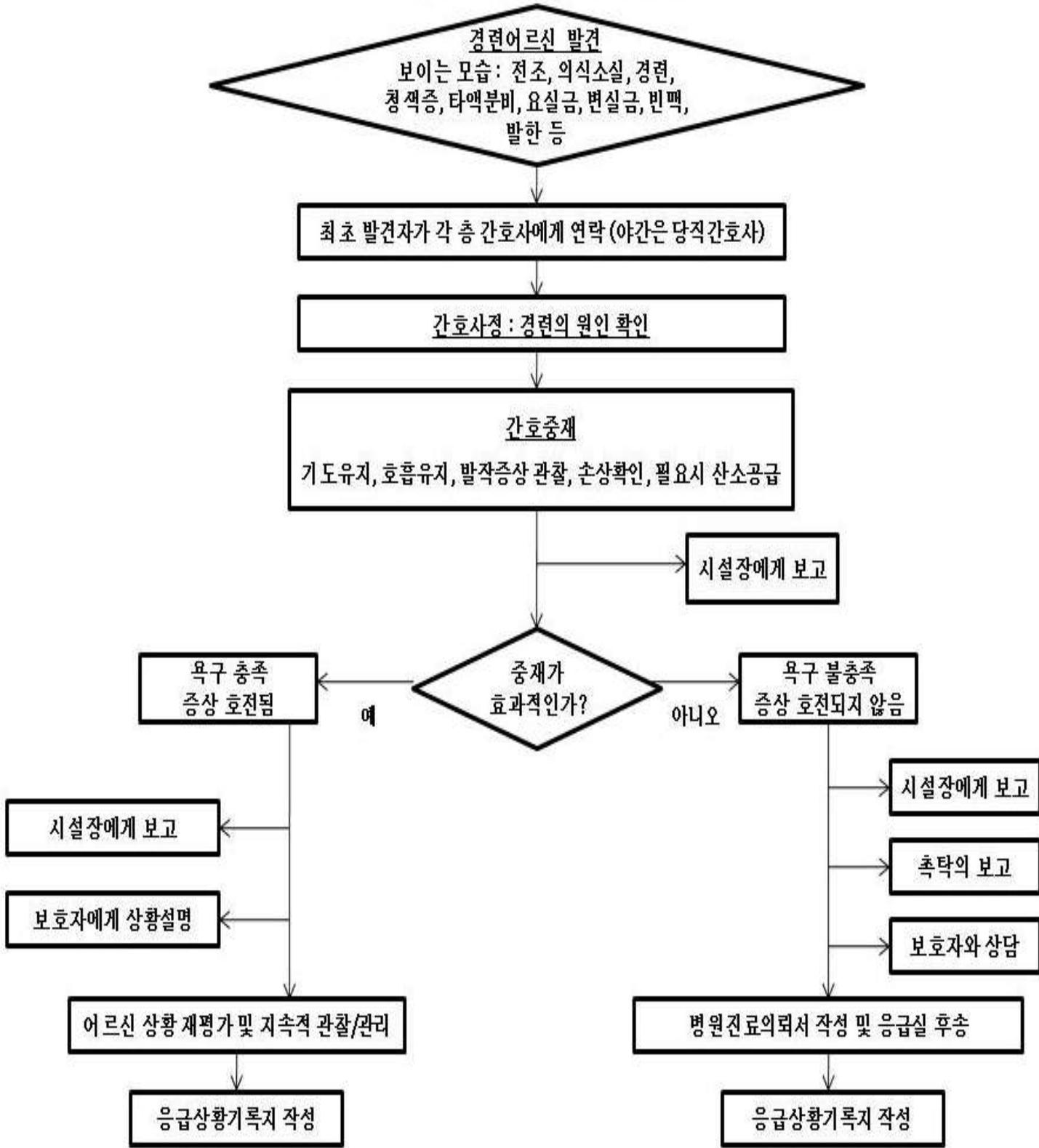
### 2) 예방법

- ①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경련제의 투여가 중요하며 역치를 높여 발작을 예방한다.
- ② 약물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1~2주에 걸쳐 투여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 3) 발생시 대응방법

- ①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② 침착하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고 어둡게 해주며 단단하고 예리한 물건을 치워 둔다.
- ③ 속옷이나 목을 조이는 옷 등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 ④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어르신의 머리를 측면으로 돌려서 침과 이물질이 나오도록 한다. 이때 혀를 깨물지 않게 주의 한다.
- ⑤ 머리말에 말은재킷과 같은 평편하고 부드러운 물건을 놓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⑥ 입을 딱딱한 기구나 손가락으로 강제로 열려고 하면 안 된다. 강제로 하면 어르신의 치아나 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열려고 했던 사람도 다칠 수 있다.
- ⑦ 경련을 하는 대상자를 붙잡거나 움직임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 ⑧ 경련이 멈춘 후에 호흡을 다시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공호흡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 ⑨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어르신 곁에 있어준다.
- ⑩ 경련이 3분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경련이 곧바로 시작되거나 경련이 멈춘 후 깨어나지 않을 때, 상해를 입었을 경우 119나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⑪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 어르신을 주무르거나 잡는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간질로 경련을 한 어르신들은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특히 경련 후 이상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경련 어르신 관리체계



### 3. 화상

화상이란 높은 온도의 기체, 액체, 고체, 화염 등에 데었을 때 일어나는 피부의 손상으로, 원인에 따라 열화상, 전기화상,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상은 피부손상 이외에도 기도가 부어서 생기는 기도폐쇄, 기관지염이나 폐부종, 쇼크, 근육파괴에 의한 신부전증, 부정맥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모든 연령에서 화상이 발생하지만 어르신들은 회복이 느리며 재활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상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 1) 화상 손상정도에 따른 분류

##### (1) 1도 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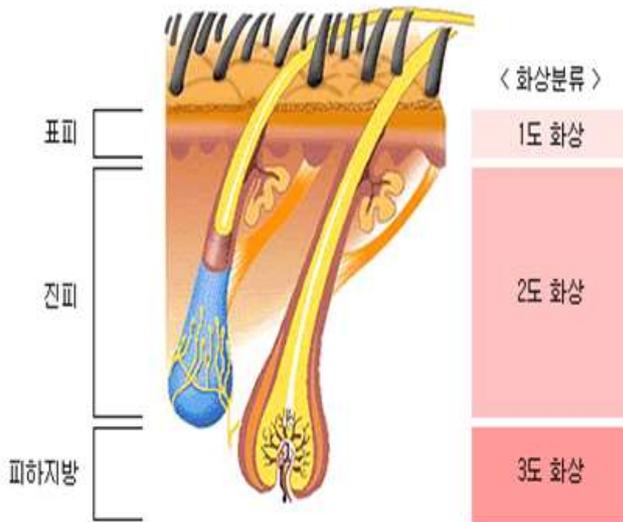
- ① 열에 의해 붉어져 홍반성이고 표피층만의 손상이 보인다.
- ② 열감과 통증을 느끼며 부종이 있다.
- ③ 피부가 붉게 되고, 따끔거리는 등의 통증을 수반한다.
- ④ 피부층 중에 가장 바깥층인 표피가 손상된다.
- ⑤ 즉시 찬물로 식히는 등의 처치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 ⑥ 회복 후에는 반흔(흉터)이 남지 않는다.
- ⑦ 햇볕화상의 경우가 일반적인 1도 화상의 좋은 예가 된다.

##### (2) 2도 화상

- ① 피부에 수포가 생긴 정도의 화상으로 표피 및 진피의 손상이 있다.
- ② 심한 통증을 느끼며 수포가 보인다.
- ③ 표피와 진피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 ④ 홍반, 통증, 부어오름 그리고 사고 후 24시간 내에 물집이 생긴다.
- ⑤ 1주일에서 몇 주일로 치유되지만 그 자리에 색소침착이 남는 일이 많다.
- ⑥ 2차 감염을 일으키면 국소증세는 더 심하고 경과도 오래 간다.

##### (3) 3도 화상

- ① 화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괴사성이고 피부의 진피 또는 심부조직까지 손상된 상태이다.
- ② 거의 동통 지각이 없고 가피(부스럼딱지)가 형성되며 흉터가 보인다.
- ③ 피부의 표피, 진피층은 물론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이 파급된 상태로서 두꺼운 피부껍질을 형성하게 된다.
- ④ 가피는 죽은 조직으로 감각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피부이식수술을 필요로 한다.



★ 1도 화상 - 피부가 부어오르나 물집이 생기지 않음

★ 2도 화상 - 상처가 붓고 물집이 생기며, 피부 속에 염증이 생김

★ 3도 화상 - 피부가 하얗게 되고 피부 속까지 화상을 입음

## 2) 예방법

- ①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장판 등의 개인 난방장치를 비치하지 않도록 한다.
- ② 뜨거운 물의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욕물을 커다란 통에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며, 이 때의 물의 온도는 40℃ 정도로 맞추도록 한다.
- ③ 물리치료시 핫팩을 사용할 때는 뜨겁지 않은 온도로 맞추어 하되 수시로 핫팩을 댄 부위의 이상유무를 체크하도록 한다.
- ④ 어르신이 산책을 하실 경우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도록 한다.
- 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기포트 등의 전열기구는 어르신들이 만지지 않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한다.

## 3) 화상 발생시 일반적인 대응방법

- ① 부종이 심해지기 전에 가능하다면 시계, 반지 등을 제거한다.
- ② 1~2도의 적은 범위의 화상의 경우는 환부를 찬물에 담그든지 흐르는 찬물에 직접 대서 식히되 화상 부위에 직접 얼음을 대지 않도록 한다.
- ③ 수포가 생겼거나 피부가 벗겨졌을 때는 깨끗한 거즈나 천을 대고 찬물에 식힌다.
- ④ 물집은 함부로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 ⑤ 수건에 싼 얼음주머니나 젖은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냉찜질을 하면 화상면의 확대와 수포발생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⑥ 체온상실로 인한 쇼크방지를 위하여 외부 공기와의 노출은 가능한 줄이고 보온한다.
- ⑦ 중증 화상일 경우 특수 처치에 대비하여 대상자가 갈증을 호소하는 경우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 물을 준다.
- ⑧ 화상 부위에 입혀진 옷은 옷 위로 냉수를 부으면서 식히되 수포가 터질 수 있으므로 옷을 함부로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 ⑨ 의료기관에 옮겨질 때까지 찬 물수건으로 지속적으로 식히되 약품이나 기름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 4) 화상 발생시 원인별 대응방법

##### 4-1) 열화상

- ① 화상부위를 즉시 찬물로 식힌다. 3도 화상인 경우에는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지 않는다.
- ② 화상부위의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세균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화상은 습윤 처치를 하지만, 화상을 입은 범위가 크면 소독된 거즈 등으로 화상부위를 덮어 감염을 최소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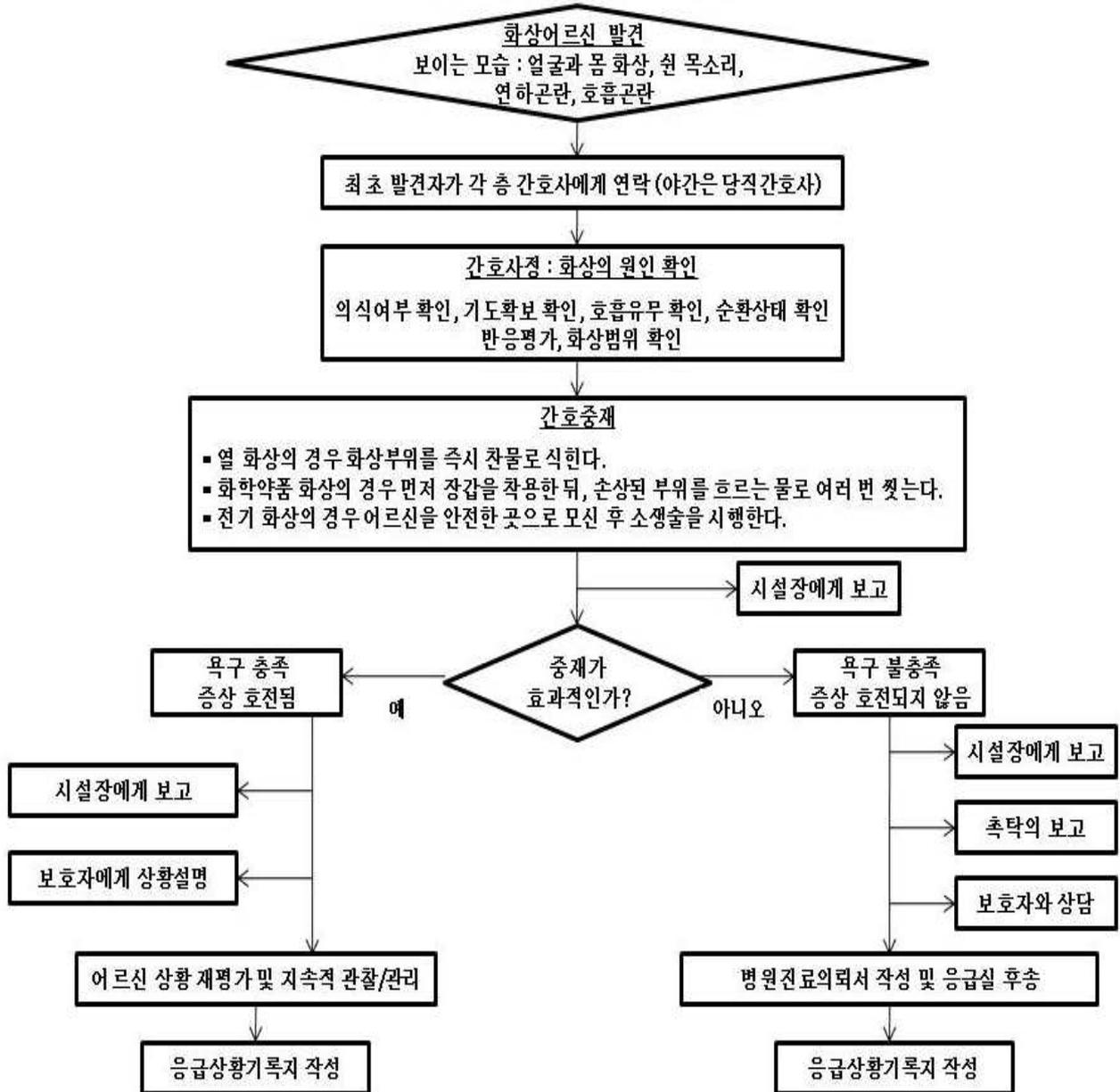
##### 4-2)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 ① 약품이 묻은 옷과 장신구는 제거하여 화학물질과 피부를 분리시킨다.
- ②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5~30분 정도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식힌다.
- ③ 건조한 소독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어주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4-3) 전기 화상

- ① 감전 원인을 제거한 후 안정자세를 취하게 한다.
- ② 소독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어주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화상 어르신 관리체계



## 4. 골절

골절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골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것으로, 어르신의 골절은 낙상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골절의 25%가량이 고관절 부위이다.

어르신들에게 골절은 신체기능을 손상시키는 주요 건강문제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고, 만성적 불구나 장애, 기능수행능력의 상실과 긴 치료과정 중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이 동반된다.

### 1) 골절 증상

- ① 압통 : 손상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 ② 변형 : 외형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로 다치지 않은 쪽과 다친 쪽 비교로 확인 가능하다.
- ③ 반상출혈 : 조직 안에서 나온 혈액이 피부 표면에서 자색으로 보인다.
- ④ 부종 : 손상부위가 부어 있다.
- ⑤ 운동 제한 : 손상부위를 움직일 수 없다.
- ⑥ 노출된 골편 : 손상된 피부에서 골격이 관찰된다.

### 2) 골절의 예방법

- ① 노인성 골절의 주 원인인 낙상예방 간호를 수행한다.
- ② 침상에서 내려오기 전 침대가에 잠시 앉아 있도록 한다.
- ③ 침대에서는 침대난간을 사용한다.
- ④ 목욕탕에는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않게 한다.
- ⑤ 주변환경을 정돈하고 바닥을 가로지르는 줄이나 선이 없도록 한다.
- ⑥ 미끄럼방지 신발이나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 3) 골절 발생시 대응방법

- ① 골절 부위를 안정시키고 말초를 관찰할 수 있도록 장갑, 양말, 신발 등을 벗기고 환부를 고정시킨다.
- ② 출혈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치부터 실시한 다음 골절 처치를 한다.
- ③ 골절 부위를 원래 상태로 고정시키려 하지 말고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고정 후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 ④ 골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선 골절된 것으로 보고 대상자를 다룬다.
- ⑤ 골절 부위를 꼭 조일 것 같은 의류는 벗기든지 잘라 둔다.
- ⑥ 골절 부위에 따라 부목은 상하 관절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길이와 넉넉한 넓이의 것으로 사용한다.
- ⑦ 부목을 댈 경우 피부에 닿는 부분은 헝겊을 대서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 ⑧ 부목이 없을 경우 대용품 사용하되 넓이나 길이가 충분한 것, 단단하고 편편한 것, 가벼운 것으로 한다.

## 4) 골절의 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 4-1) 전박과 손가락 골절

- ① 전박 골절인 경우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 닿을 정도의 부목이나 부목 대용품 두개를 각각 손바닥과 손등 쪽에 대고 양쪽을 삼각건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 ② 손가락 골절인 경우 부목의 길이를 전박의 중간부터 손가락 끝까지 닿을 정도로 하고 부목을 형겅으로 싸서 손바닥과 손등 쪽에 대고 양쪽을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 ③ 손가락 골절의 경우 발견된 자세 그대로 부목으로 고정하고, 내혈에 의한 압력으로 인하여 손가락과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전박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 ④ 팔꿈치보다 손을 약 10cm 정도 높이고 손바닥이 가슴을 향하게 하여 삼각건 같은 넓은 붕대로 팔을 끌어 올려 고정시킨다.

#### 4-2) 쇄골 골절

- ① 팔꿈치를 구부리고 팔을 가슴에 대준다.
- ② 부상당한 쪽의 팔은 손을 팔꿈치보다 약간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대어 삼각건으로 매고 다시 팔 전체가 몸에 착붙게 삼각건으로 매는 팔걸이 붕대법을 적용한다.

#### 4-3) 늑골 골절

- ① 늑골 골절은 고정을 하는 응급 처치가 필요 없지만, 골절된 골단이 폐를 찔렀을 경우 기흉, 혈흉 등이 발생하여 심한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4-4) 고관절 골절

- ① 고관절 골절이 있으면 일어서면 안 되고, 겨드랑이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닿는 긴 부목을 부상당한 다리에 대고 삼각건을 이용하여 부목과 다리를 고정한다.
- ② 만약 부목이 없을 때는 양쪽 다리 사이를 고임대로 고인 뒤에 양쪽 다리를 합쳐서 붕대를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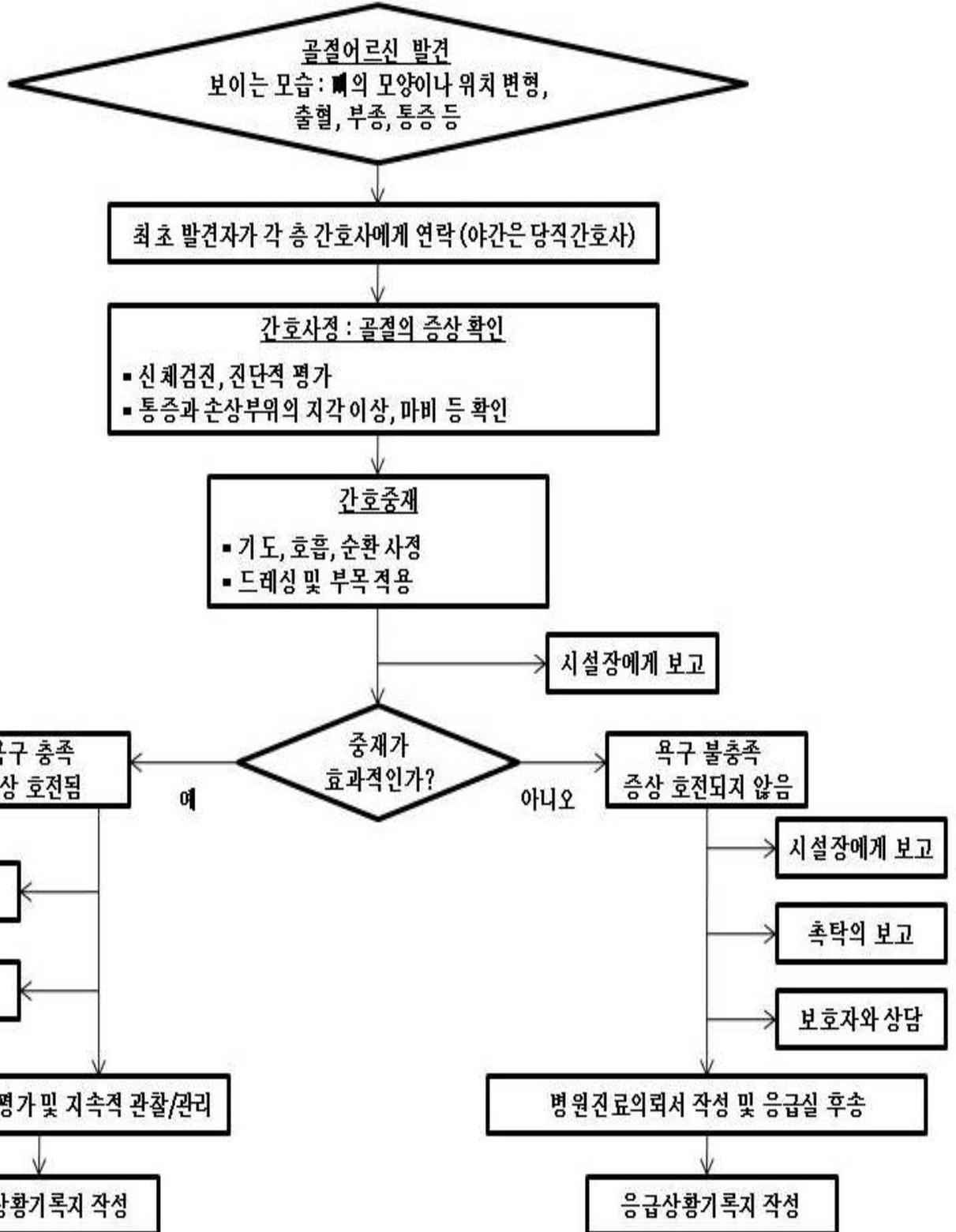
#### 4-5) 대퇴골 골절

- ① 부목은 겨드랑이에서 발끝까지보다 조금 긴 것으로 고정한다.
- ② 부목의 한 끝은 대상자의 환부 쪽의 겨드랑이에 대고 다른 끝은 외복사뼈에 댄 후 대상자의 발꿈치 밑으로 삼각건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어 부목에 고정시킨다.
- ③ 부목의 끝 부분이 겨드랑이의 끝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타월을 접어서 대 준다.
- ④ 삼각건이나 긴 형겅으로 대상자의 가슴, 복부, 대퇴, 슬와 부위를 부목에 고정되도록 묶는다.

### 5) 골절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 ① 현상이 위험하지 않는 한 대상자를 옮기지 않는다.
- ② 손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 ③ 개방성 골절로 인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뼈 끝은 다시 넣지 않도록 하며 감염에 주의한다.
- ④ 손상 부위에서 멀리 위치한 부위의 순환, 감각, 운동기능을 검사한다.
- ⑤ 부목은 가볍고 단단하며 신체의 폭과 비슷하고, 한 관절 이상의 긴 길이를 사용한다.
- ⑥ 어르신은 주로 퇴행성 질환이나 노환으로 인한 골절로 통증이 적을 수 있다.

# 골절 어르신 관리체계



## 5. 간질

1) **개념** : 간질은 뇌 특정 부분의 신경세포에 갑자기 센 전류가 흐르는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나 크게 갑자기 의식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는 대발작과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소발작으로 나눌 수 있다.

### 2) 간질 발생시 대응방법

발작은 한번 시작이 되면 1~2분 후에는 저절로 끝나게 되고 10~30분 이내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때문에 발작 도중 어르신 자신을 가해하거나 신체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① 선불리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는 발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 ②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신체적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 ③ 중간에 인공호흡 등은 금물이다.
- ④ 몸과 목을 옆으로 돌려서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한다.
- ⑤ 손가락이나 딱딱한 물체를 입 사이에 집어넣는 행동은 아주 위험하다.
- ⑥ 발작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해주고,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신체적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 ⑦ 간질이 멈추지 않고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가서 증상을 치료해야 한다.

## 6. 저혈당증(hypoglycemia)

1) **개념** : 혈당이 50~60mg이하인 경우로 과량의 약물(혈당강하제), 소량의 음식섭취, 과도한 신체활동 등으로 발생한다.

2) **증상** : 약하고 빠른 맥박, 심한 발한으로 인한 차고 축축한 피부, 허약감과 조절불능, 두통, 안절부절, 신경증적 또는 기이한 행동양상, 경련과 혼수

### 3) 발생시 대응방법

- ① 혼수상태인 경우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② 어르신이 의식이 있으면 5~15g 당질을 준다. 사탕 6~8개, 과일주스, 설탕물이나 꿀물을 먹인다.

## 7.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 1) 응급 처치법

- ① 급히 면봉으로 긁어내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피한다.
- ② 벌레가 들어갔을 때 : 회중전등으로 귀 입구에 빛을 쬐이거나 스포이드에 물이나 올리브를 묻혀 흘려 넣으면 벌레가 나오거나 죽는다.
- ③ 물이 들어갔을 때 : 물이 들어간 귀를 아래쪽으로 눕히고 귀를 따뜻하게 해주면 물이 나온다. 면봉사용은 염증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한다.
- ④ 위의 방법이 모두 실패할 경우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 8.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 1) 응급 처치법

- ①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한다.
- ② 어르신을 의자에 앉힌 후 불빛을 보게 하고 뒤로 기대게 한다.
- ③ 눈 속의 이물질이 보이면 소독이 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낸다.
- ④ 머리를 이물질이 들어간 쪽을 밑으로 기울여서 씻어낸 물이 다른 쪽 눈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 ⑤ 이물제거를 실패하면 상처받은 눈에 안대나 거즈를 대고 그 반대편 눈도 가려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 ⑥ 유리조각과 같이 날카로운 것이 들어간 경우 절대로 물로 닦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 < B. 질환에 따른 응급상황 대응법 >

### 1.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조직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한다. 뇌졸중 시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1) 증상

- ①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 ② 심한 구토
- ③ 갑작스러운 한쪽 또는 양쪽 시력의 저하
- ④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 ⑤ 얼굴, 팔,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감각해지거나 약해짐
- ⑥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없어짐
- ⑦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⑧ 어지럽거나 균형감각이 없어짐

## 2) 발생시 대응방법

- ①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② 토할 때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
- ③ 옆으로 눕히되 마비되지 않은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 ④ 의식이 있으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려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⑤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 2.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한다.

### 1) 증상

- ① 흉부 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듯한 느낌
- ② 가슴 중앙부 통증이 수분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함
- ③ 두통, 발한, 오심, 호흡곤란, 실신

### 2) 발생시 대응방법

- ①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 ② 좌위나 반좌위로 유지한다.
- ③ 목과 가슴 허리부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준다.
- ④ 나이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 ⑤ 필요 시 산소를 흡입시킨다.
- ⑥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주위를 조용하게 해 준다.

## 3.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흉부 불편감 또는 통증을 말한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는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그리고 과식 후에 잘 발생한다.

### 1) 증상

- 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②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짐
- ③ 10분이상 통증이 지속되지 않음

### 2) 발생시 대응방법

- 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 ②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응급상황 기록부				결 재	담 당	팀 장	사 무 국 장	시 설 장
발생일시	20 년 월 일 ( 요일) 시 분			담당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락처			
보호자			응급이송병원					
사 유								
조치사항								
보호자 상 담								
사후관리								
담당자 의 견								